

문병란 시인의 ‘저항정신’ 되새기다



故 문병란 시인



지난 2022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문병란시인기념사업회 등이 공동으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한일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깊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뚝들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織女에게’ 중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시 ‘직녀에게’로 유명한 문병란 시인(1935~2015)이 타계한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남과 북의 분단을 견우와 직녀로 비유한 ‘織女에게’는 분단의 아픔을 형상화한 문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이후 ‘織女에게’는 지난 1987년 가수 김원중 씨가 ‘직녀에게’를 만들어 부르면서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문병란 시인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의 정치 상황에서 5·18민중항쟁의 정당성을 비롯해 진실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을 쏟은 남도의 대표 문인이다.

문병란 시인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문병란기념사업회 이명환 회장은 21일 “문 시인은 군부독재 시대 타는 가슴으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시로 표현했다”며 “비양심적 문인들은 자기 영달을 위해 국학아세를 일삼았지만 문 시인은 뜨거운 가슴으로 거침없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울곧게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과 민족정신이라는 거대 담론 외에도 실의에 빠진 서민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작품을 많이 창작했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노

타계 10주년 맞아 기념행사 다채 독재정권 맞서 5·18 알리기 온 힘 한·일 심포지엄, 시선집 발간 계획 기념사업회, 법인화 모색도

래한 그의 시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감동을 준다”고 덧붙였다.

화순 출신의 문 시인은 ‘현대문학’ (1959~63)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가로수’ ‘밤의 호랑’ ‘꽃밭’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문병란 시집’, ‘죽순밭에서’, ‘배들의 속삭임’, ‘땅의 연가’ 등을 비롯해 육필시집 ‘법성포 여자’, ‘장남감이 없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2020년 말 결성됐다. 지역의 덕망있는 이명환 원로 소설가를 중심으로 유족과 인척,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두암동 사무실에서 기념사업회를 꾸렸으며 이명환 소설가가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에 앞서 문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민족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평소 그를 아끼고 흠모하는 지인들이 모여 기념사업회 결성 건을 두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태 시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일월서각 백영수 대표,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유족을 대표해 장남 문찬기 원장 등이 모여 논의를 했다. 최근까지 기념사업회는 선양사업에 관한 논의

를 진행해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국제심포지엄, 시선집 발간, 기념사업회 법인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5월 18일에는 기념사업회와 타 기관과의 공동주최로 문병란 시인의 저항정신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문병란 시인과 일본의 양심 작가 마스터 도키코의 저항정신’ (가제)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를 진행해 인권·평화의 의미를 되새긴다.

행사 이튿날 심포지엄 참가자들과 외국인 일행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자리한 문 시인의 묘지를 찾아 참배할 계획이다.

문 시인의 작품 가운데 일부 작품을 묶는 시선집 발간도 추진된다. 고인의 선구자적 삶, 문학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선집 발간을 구상 중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환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기념사업회 법인화를 모색 중이다. 문 시인이 타계한지 10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시대의식 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주오대 히로오카 모리호 교수와 ‘직녀에게’-1980년 5월 광주를 공동 번역했던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는 “문 시인은 처음에는 서정시로 출발했지만 이후 불의의 사회와 군부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사회적인 리얼리즘의 시를 많이 발표했다”며 “김현승 시인의 영향을 받아 모던하면서도 서정적인 시 세계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날 ‘재미·안전’ 선물하는 대축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다음달 5일 뮤지컬 ‘물의 요정 방울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달 5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가 펼쳐진다. 지난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버블쇼를 즐기는 모습.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 광주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대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면서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선 이날 오전 11시 안전체험관 3층 응급안전체험구역에서 뮤지컬 ‘물의 요정 방울이’가 펼쳐진다.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나선 물의 요

정의 모험을 그린 이번 공연은 인형극과 음악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환경과 안전 문제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밖에 일상 속 위기 대처 방법을 배우는 안전체험을 비롯해 미니서커스, 마술·버블·풍선쇼, 디제잉 공연, 놀이바운스, 다양한 체험 부스 등 풍성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뮤지컬과 안전체험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소외 이웃도 문화 장터 ‘누리랑께’

광주문화재단, 오늘 계림1동·내일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서 진행



문화장터 ‘누리랑께’가 오는 22일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개최된다. 무등울림축제에서 지난해 문화장터가 열린 모습.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문화장터 ‘누리랑께’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 이사 노희웅)은 제1·2차 문화장터를 22일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와 23일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재단은 문화누리카드(소외계층에 문화생활 지원하는 복지카드)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문화장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의 생활권으로 찾아가 다양한 공예품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해 도자기 등

생활용품, 가족·한지 공예품, 원목주방용품, 캠핑용품, 패브릭 소품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문화누리카드도 물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바구니·협색 등 사은품도 증정한다.

올해 문화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 진행될 예정이며 접근성이 높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열린다. 무등울림축제(5월 24~25일, 전통문화관 일대)와 아트트럭(5월 31일, 하남주공아파트)에서도 문화장터를 만날 수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며, 문화예술행, 여행, 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4만원을 지원한다.

/장혜원 기자 hey1@

진로 모색하고 미디어아트 제작하고

ACC, 5월 ‘방과 후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미디어 아티스트’ 진행

‘미디어 아티스트와의 만남 및 체험’,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미디어아트 관련 진로 설계’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이 오는 5월에 진행할 ‘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미디어 아티스트’ 프로그램이다. 문화정보원B2 미디어실이며 7~28일 매주 수요일. 이

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직업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오는 7월 첫 수업은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개념과 아울러 미디어 아티스트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활용법도 익힌다.

14일은 카메라와 사운드 장비를 토대로 원본 영상과 사운드를 촬영하는 실기수업이 펼쳐진다. 세 번째 수업(21일)에는 작품 제작을 위한 편집 기법을 배우며, 마지막 수업(28일)은 프로젝트 맵핑 기술을 이용해 작품 구현 및 공유가 예정돼 있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아트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직접 창작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며 “청소년들이 실기 위주의 교육을 매개로 진로를 모색하고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